

최근의 출산력과 정책적 함의*

박 경 애**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고,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핵심단어: 합계출산율, 저출산, 출산력, 초혼, 여성인구, 출산장려정책

I. 서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6년 7월에 새로마지플랜 2010(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2007년의 새로마지플랜

*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2007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으로, 포럼의 지정토론자 김태현, 안계춘, 이규식, 이삼식, 이성선, 이승욱, 최순과 익명의 심사자 3명께 감사드린다.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2010(보건복지부, 2007a; 2007b)에 의하면, 주요 저출산 대책이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영유아 모자보건 지원,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추진, 출산·양육 장애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인데, 주로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장려금지원이 대부분이다.

합계출산율은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5년 1.08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1.13으로 증가하였다. 이 증가가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므로 향후에도 출산력 증가가 지속되리라고 보는 낙관론자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출산력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결과이고, 출산력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출산율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구동태신고 자료에 나타난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8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감소한 이후의 제2차 출산력 저하 원인에 대해서는 혼인상태의 변화, 출산연령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은기수, 2001; 전광희, 2002, 2006; Choe, Retherford and Kim, 2004). 출산의 지연 및 출산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 전 취업경험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IMF 위기 이후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공선영, 2006; 김두섭, 2005, 2007; 김태현, 2005; 유삼현, 2006; 은기수, 2004; 이삼식 외, 2005).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의 임금상승, 경제활동참여증가, 학력수준, 첫 자녀가 남자일 경우 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되었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에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조사되었다(Choe, Bumpass and Tsuya, 2004). 인구센서스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이혼의 증가, 3세대이상 가구의 감소, 도시거주자의 증가,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부인의 증가, 전문/사무직 증가가 2000년의 출산수준을 낮추는 요인이었다(김태현 외, 2006).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2003년까지 분석한 결과 말띠해에 여이출산기피로 출생성비가 높고, 출산율이 낮아졌다(Lee and Paik, 2006).

인구센서스, 인구동태통계 및 각종 표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Park(2006)은 2005년까지의 출산력 변화를 설명하면서, 개인주의와 사회경제적변화가 성역할, 가족형성 및 자녀의 가치 변화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주며,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참여 증가, 혼인 및 출산의 연기, 자녀의 성 선호, 이혼과 재혼의 증가,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의 복합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¹⁾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종합하면, 결혼·자녀가치관변화 및 양성평등 인식 부족, 소득·고용 불안정, 출산·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양육인프라부족, 일·가정양립곤란 등 복합적 요인이 혼인 및 출산 여부 및 시기에 영향을 주어 출산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출산을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의 특징 및 분석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년, 특히 2005-2006년 동안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변화가 출산력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여성의 연령별 인구 및 초혼 건수의 변화가 출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셋째, 인구의 혼인상태 변화가 출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II. 자료 및 방법론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국민의 출생·혼인·이혼신고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작성·보급하는 인구동태통계 중 출생편 및 혼인·이혼편이다. 각종 동태

$$- \text{합계출산율 (TFR)} = \sum_{i=15}^{49} ASFR(\text{각세별 출산율}) \div 1,000$$

$$- \text{템포조정합계출산율 (TFR)} = TFR / (1 - m)$$

$$- \text{출산순위 } i \text{의 템포조정합계출산율 (TFR}'_i) = TFR_i / (1 - m_i)$$

여기서, m = 평균출산연령의 변화량

m_i = 출산순위 i 의 평균출산연령의 변화량

$$- \text{성} \cdot \text{연령} \cdot \text{혼인상태별 인구} = \text{성} \cdot \text{연령별 추계인구} * \text{성} \cdot \text{연령} \cdot \text{혼인상태별 구성비}$$

1) 1990-2006년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합계출산율과 주요 특성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면,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95), 여성의 대학진학률(-0.94), 여성의 초혼연령(-0.97),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구성비(-0.96), 도시가계 중 교육비 비중(-0.85) 이 합계출산율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이며,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총조사 및 각종 표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해당연도 인구총조사와 2006년 발표한 인구추계 자료를 근거로 유배우 인구를 추정하여 유배우 출산율을 계산하였다. 각종 동태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공식은 위와 같다.²⁾

III. 최근의 출산력

1.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1)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변화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2002년 말때 해에 여아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17로 다소 낮아졌다가(Lee and Paik, 2006) 2003년에 1.19로 반등한 이후, 2005년 1.08까지 낮아졌고 2006년에는 1.13으로 반등하였다(통계청, 2007a). 출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인 기간(period) 합계출산율(이하 TFRasfr로 표기)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TFRasfr는 자료획득 및 계산이 용이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평균출산연령이 상승 또는 하락 시에는, 즉, 이 지표가 구성하고 있는 코호트들의 출산템포가 변화할 때에는, 출산율이 교란되어 나타남으로써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전광희, 2006; Bongaarts and Feeney, 1998, 1999;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 Yi and Land, 2001). 이러한 출산연령 변화에 따른 출산력 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코호트 합계출산율(cohort TFR)이나,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이하

<표 1>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및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

(단위: 세)

초혼연령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5.5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출산 연령	첫째	26.7	26.9	27.2	27.4	27.7	28.0	28.3	28.6	28.9	29.2
	둘째	28.9	29.1	29.3	29.4	29.7	29.9	30.2	30.5	30.8	31.0
	셋째	31.7	31.9	32.0	32.1	32.2	32.5	32.7	32.9	33.1	33.3
	넷째+	34.3	34.3	34.3	34.4	34.5	34.8	34.9	34.9	35.3	35.3

2) 이론적 배경 등은 봉가르츠(Bongaarts, 1998: 1999)를 참조.

TFRtafr로 표기, tempo-adjusted fertility rate)을 활용하고, 개인의 출산행위를 근거로 출생순위별 출생진도비를 이용하여 계산한 합계출산율(이하 TFRpppr로 표기)을 활용하기도 한다(Choe and Park, 2006).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및 평균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고, 초혼연령의 상승은 첫째아 출산연령을 상승시켰으며, 첫째아 출산연령의 상승은 결국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³⁾ 2006년의 초혼연령은 10년 전보다 2.3세 높아졌고, 매년 0.2-0.3씩 높아지던 초혼연령이 2005-2006년 사이에는 0.1세 상승하여 초혼연령 상승이 다소 둔화되었다.

출산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은 2006년에 30.4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높아졌고, 10년 전에 비해 2.3세 높아졌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29.2세로, 전년대비 0.3-0.2세씩 늘어나던 첫째아 출산연령은 2006년에 0.1세 증가하여 첫째아 출산연령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둘째아 이상의 출산연령은 전년대비 증가하는 양상이다. 10년 전(96년)과 비교해 볼 때, 첫째아는 2.5세 증가하였으나, 둘째아는 2.4세, 셋째아는 1.8세, 넷째아 이상은 1.1세 증가하여,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평균출산연령의 상승 정도는 작아진다. 이는 셋째아 이상의 출산이 태포조정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음을 의미한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산모의 연령별 분포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출산태포 효과만이 아니라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감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동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출산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거 후 2년 안에 출산하는 비율이 1996년 83.4%에서 2005년 71.4%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 71.8%로 증가하였으므로, 동거 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을 출산순위별로 살펴보자. 동거부터 첫째아 출산까지의 평균기간은 2004년 1.77년에서 2005년

<표 2> 동거부터 출산까지의 소요기간 및 전년대비 증감

(단위: 년)

	소요기간			전년대비증감	
	2004	2005	2006	2004-2005	2005-2006
전체	3.43	3.41	3.41	-0.02	0.00
첫째아	1.77	1.76	1.75	-0.01	-0.01
둘째아	4.49	4.51	4.54	0.02	0.03
셋째아 이상	7.85	7.89	7.91	0.04	0.02

3) 구시군을 단위로 2006년 합계출산율과 주요 특성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모의 첫째아 출산연령(-0.50) 및 여성의 초혼연령(-0.60)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1.76년, 2006년 1.75년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둘째아 이상의 기간은 증가세를 보인다(<표 2> 참조). 즉, 혼인을 미루다가 첫째아 출산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아 이상은 늦게 가지는 추세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및 템포조정합계출산율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변화정도가 연도별로 출산순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2006년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을 고려해야만 한다. TFRasfr과 TFRpppr은 1996년-2000년 동안 연도에 따라 0.08-0.28 차이를 보였고(Choe and Park, 2006), TFRasfr과 TFRtafr은 0.26-0.55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특히, 2000-2004년에는 TFRasfr와 TFRtafr간 차이가 0.44-0.55로 상당히 컸으나, 2005-2006년에는 0.26-0.30으로 감소하였다. TFRasfr, TFRtafr, TFRpppr 세 지표를 비교해 보면, TFRasfr이 가장 작은 수치를 보이고, 연도에 따라, 즉, 기간효과 및 출산연령에 따라, 실제 출산율이 다소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⁴⁾

따라서, 출산율의 상승이 일시적인 기간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출산연령이 생물학적 특성상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으니까 출산연령 상승이 둔화되면 어느 시점에선가 TFRasfr이 현실을 왜곡하여 반영하는 정도가 적어지면서 TFRasfr이 올라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개인이 출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거시적 지표인 TFRasfr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데, 개인이 출산을 늦출수록 TFRasfr은 현실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미루었던 개인의 출산이 집중되어 나타나면 TFRasfr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이 2005년 1.34로 최저치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는 1.42로 높아졌다(<표 3> 참조). 즉, 2006년에 전년대비 합계출산율이 0.05 증가했으나,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은 0.09 증가했다. 이는 첫째아 출산연령의 상승 둔화 및 둘째아 이상 출산연령 상승 지속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 즉, 미루던 첫째아 출산이 이루어지거나, 둘째아 출산을 연기함으로써 TFRasfr 증가에 공헌했음을 뜻한다. 생물학적 특성이나 외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향후에 출산연령이 더

4) 템포조정합계출산율 역시 코호트별 과거의 실제출산력을 그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미래의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지도 않는다. 다만, 템포효과로 왜곡된 기간출산율을 다소 보정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점(Yi and Land, 2001)에 주목하자.

<표 3>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과 템포조정합계출산율

(여자명당 출생아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FR (A)	1.58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1.13
첫째	0.77	0.75	0.72	0.72	0.70	0.62	0.58	0.60	0.61	0.57	0.60
둘째	0.67	0.65	0.60	0.57	0.62	0.54	0.48	0.48	0.45	0.41	0.43
셋째	0.13	0.14	0.13	0.12	0.14	0.12	0.10	0.10	0.10	0.09	0.09
넷째 +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템포조정TFR(B)	1.88	1.91	1.86	1.73	2.02	1.74	1.68	1.62	1.67	1.34	1.43
첫째	0.91	0.96	0.95	0.92	1.01	0.88	0.85	0.85	0.84	0.71	0.73
둘째	0.80	0.76	0.75	0.66	0.83	0.69	0.68	0.64	0.69	0.51	0.57
셋째	0.15	0.16	0.15	0.14	0.17	0.15	0.13	0.12	0.12	0.11	0.11
넷째 +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2	0.01	0.01
(B) - (A)	0.29	0.36	0.39	0.31	0.55	0.44	0.50	0.44	0.51	0.26	0.30

주: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은 통계청(2007a) 자료를 활용 넷째아 이상까지 세분화하고 소수점 4자리까지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이상 많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출산연령 상승 둔화만으로도 합계출산율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 정도가 출산순위별로 다르므로,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여 보면(<표 3> 참조), 2006년에 전년대비 첫째아는 0.03, 둘째아는 0.02 증가하였고,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은 변함이 없다.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의 경우 첫째아는 0.02, 둘째아는 0.06이 증가하고,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은 변함이 없다. 첫째아 출산율은 첫째아 출산연령 상승 둔화로 인하여 합계출산율 변화보다 템포조정합계출산율 증가폭이 다소 적고, 둘째아 출산에서 전년대비 출산연령이 또 다시 증가하여 합계출산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은 기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또한 1999-2000년, 2005-2006년 동안의 변화에서 둘째아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기하던 출산을 밀레니엄베이비붐이나, 출산 및 자녀양육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여 즉, 기간요인에 따라 둘째아 출산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출산행태가 향후에도 반드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둘째아는 연도별 특성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첫째아를 가진 부부에게 둘째아를 가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둘째아를 가진 부부에게 셋

5) 전광희(2006)는 “평균조혼연령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간합계출산율은 최소한 1.6명으로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p.88)고 주장한다.

째아 이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985년 이후 둘째아 출산율은 연도에 따라 등락폭이 다소 많은 영향을 받는데 반해, 첫째아는 그 영향력이 둘째아보다 비교적 적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06년의 출산율을 어느 시점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출산율 감소폭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의 출산율은 변화가 없다. 이는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 또는 두 자녀만 갖는 여성이 늘어나는 반면, 세 자녀 이상을 두는 여성들은 연도별 특성에 따라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⁶⁾ 따라서, 둘째아를 가진 부인이 셋째아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출산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우선 첫째아와 둘째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력

1)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2006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약 451,514명으로 2005년보다 13,452명 증가하였다.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20,458건 증가한 이래 6년 만에 증가하였다. 출생아수의 증가에 대한 모의 연령별 공헌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2006년 30대 초반의 출생아수는 189,454명으로 2005년보다 10,659명 증가하였고, 총 출생아수 증가의 79%를 차지하였다. 30대 후반에서도 6,579명 증가하여, 30대 출산이 출생아수 증가를 주도하였다.

반면,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각각 2,123명, 1,840명 감소하였다. 20대 후반의 여성인구는 전년대비 2005년에 1,659명, 2006년에 27,029명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추세는 2007년까지 지속될 것이다(통계청, 2007c: <부표 1>참조). 20대 후반 여성의 초혼건수는 전년대비 2005년에 701건, 2006년에 13043건 증가했다(통계청, 2007b: <부표 2>참조). 20대 후반의 초혼건수 증가는 여성인구 증가에 황금돼지효과까지 겹쳐 2007년에도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2006년에 20대 후반의 초혼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감소한 이유

6) 인구총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15-49세 기혼여성 중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2000년 7.9%에서 2005년 8.6%로 증가하였으며, 출생자녀가 1명인 경우도 20.9%에서 21.9%로, 2명인 경우는 56.3%에서 57.8%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3명이상인 경우는 14.9%에서 11.9%로 크게 감소하였다.

는 동거부터 첫출산까지 평균 1.75년이 소요되기(〈표 2〉 참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의 초혼증가는 2007년과 2008년의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를 각 세별로 살펴보아도 2006년에는 전년 대비 첫째아는 28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9-33세에 출생아수가 집중하여 증가하였고, 둘째아의 출산은 30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31-35세에 천 건 이상씩 증가함으로써, 20대 후반의 출산이 30대 초반으로 연기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를 보면, 2006년 첫째아의 출생은 233,035명으로 2005년보다 8,172명 증가하여, 출산순위 중 첫째아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수 증가의 65%를 차지하였다. 둘째아는 172,323명, 셋째아 이상은 42,46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456명, 713명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출산순위별 출생구성비를 보면 2006년 첫째아의 출생 구성비는 52.0%로 2000년 47.2%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둘째아의 출생 구성비는 38.5%로 2000년 42.4%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역시 2000년 10.4%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구성비를 살펴보아도, 연령층별 첫째아 출생 구성비는 30대 초반 연령층의 40.6%, 20대 후반 연령층의 66.2%로 2005년보다 각각 1.2%p 증가하였다. 첫째아 출생 구성비는 모의 연령별로 모두 증가하였는데, 첫째아 출산이 연기되다가 2006년에 첫째아 출산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증감을 보면, 200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출생아수가 감소했지만, 특히 20대 후반의 출생아수 감소가 전체 출생아수 감소의 61%를 차지하여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5-2006년의 변화에서는 20대 후반의 첫째아 출산에서 880명 증가하였고, 둘째아의 출산은 감소하여 20대의 출생아수가 3,963명 감소하였다. 반면, 30대에서는 출산순위와

<표 4>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의 전년대비 증감

(단위: 천명)

출생아수	2005				2006				2005-200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전연령	438	225	168	42	452	233	172	42	13	8	4	1
20~24	33	25	7	1	31	23	6	1	-2	-1	-1	-0
25~29	176	114	55	6	174	115	52	6	-2	1	-3	-0
30~34	179	70	87	21	189	77	92	20	11	6	4	-0
35~39	41	12	17	12	48	14	21	13	7	2	3	1

상관없이 출생아수가 17,256명 증가하여 30대가 출생아수 증가를 주도하였다.

왜 이러한 현상이 2006년에 나타났는지는 여성의 초혼건수 증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20대 후반의 초혼건수가 2004-2005년에 701건 증가했고, 2005-2006년에는 13,043건 증가하였다. 30대 초반의 초혼은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년보다 6,339건 증가하였고, 30대 후반의 초혼도 1,727건이 늘었다(<부표 2>참조; 통계청, 2007b).⁷⁾

요약하면, 최근년도에 30대 초반의 초혼 증가가 2006년 출생아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20대 후반의 초혼이 2006년에 많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의 급속한 출산증가로써 이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동거에서부터 첫출산까지 평균 1.74년이 소요되므로(<표 2>참조), 2006년의 초혼증가는 2007년 황금돼지해에 대한 기대감과 겹쳐서 2007년의 출생아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2)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가 연령별 여성인구 크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해당연령 여성인구 천 명당 2006년 90.4명으로 2005년보다 8.0명 높아져, 처음으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30대 후반 연령층의 출산율도 21.5명으로 2005년의 19.0명보다 2.5명 높아졌다. 반면, 20대 후반 연령층은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꾸준히 낮아져 2006년 90.2명으로 나타나,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의 출산율을 앞지르게 되었다.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에서 첫째아 출산율은

<표 5>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단위: 여자 1명당 출생아수, 여자 천명당 출생아수								
	2005			2006			2006-2005 증감		
	첫째	둘째	셋째 +	첫째	둘째	셋째 +	첫째	둘째	셋째 +
TFR	0.57	0.41	0.10	0.60	0.43	0.10	0.03	0.02	0.00
20~24	13.7	3.8	0.4	13.7	3.6	0.4	0.1	-0.2	-0.0
25~29	59.8	28.9	3.4	59.5	27.2	3.2	-0.4	-1.7	-0.2
30~34	32.5	40.3	9.5	36.7	43.8	9.7	4.3	3.5	0.2
35~39	5.5	7.9	5.5	6.3	9.3	5.9	0.8	1.4	0.4

7) 재혼까지 고려한 전체 혼인건수의 경우에도 성 및 연령별 증감패턴은 초혼과 같은 추이를 보여준다. 재혼의 감소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혼인건수는 초혼건수증가보다 오히려 적다 (통계청, 2007b).

2005년 32.5에서 2006년 36.7로 증가하였고, 둘째아 출산율은 40.3에서 43.8로 증가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역시 9.5에서 9.7로 증가하여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대 후반 연령층의 출산율 역시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2006년에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에 20대에서는 20대 초반의 출산율이 약간 증가한 점을 제외하고,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20대 후반의 첫째아 출생아수가 2005-2006년에 880명 증가한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는 이 연령층의 초혼건수 및 여성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지(〈부표 1〉, 〈부표 2〉 참조), 출산율 자체는 59.8에서 58.5로 낮아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3. 혼인상태와 출산율

1) 유배우 출산율

한국에서 출산은 대부분 합법적인 혼인상태에서 이루어지고, 1990-2000년의 출산율 저하에는 유배우 출산율보다는 혼인상태의 변화가 더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므로(Choe, Rhetford and Kim, 2004), 주 출산연령층(20~39세)의 혼인상태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의 유배우율은 전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표 6〉 참조), 특히 20대 후반의 유배우율은 2005년 40.1%, 2006년 39.3%로 감소를 보였고, 30대 초반의 유배우율 역시 2005년 78.2%에서 2006년 77.9%로 감소하였다.

<표 6>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과 미혼율

(단위: %)

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p
유 배 우 율							
20~24세	33.7	27.8	19.5	16.7	10.7	6.2	6.0
25~29세	84.9	80.9	77.3	69.9	59.1	40.1	39.3
30~34세	94.3	93.3	92.4	91.4	86.9	78.2	77.9
35~39세	93.4	93.3	92.8	92.2	90.7	86.9	86.7
미 혼 율							
20~24세	66.1	72.1	80.5	83.3	89.1	93.7	93.8
25~29세	10.9	18.2	22.1	29.5	40.1	59.1	59.9
30~34세	1.7	3.1	5.3	6.8	10.7	19.0	19.3
35~39세	0.5	1.0	2.4	3.2	4.3	7.6	7.7

주: p는 잠정치

<표 7> 모(母)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단위: 해당연령 유배우 여자 천명당 출생아수)

연령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15-49	84.6	81.8	77.2	74.0	76.1	66.7	59.6	60.1	58.6	54.8	56.7
20~24	382.0	386.2	371.5	369.0	362.4	326.6	307.9	306.5	295.2	287.8	292.0
25~29	245.3	244.1	239.6	240.2	253.6	234.0	215.9	234.9	238.3	229.1	228.7
30~34	77.9	81.0	81.8	82.6	96.5	91.2	89.4	97.1	104.9	105.5	116.3
35~39	16.8	17.4	17.2	16.9	19.1	19.0	18.7	19.5	21.2	21.9	25.0

주: p는 유배우인구가 잠정치이기 때문에 유배우 출산율도 잠정치임.

역으로 여자의 미혼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으나, 2006년 20대 후반에서 59.9%이던 미혼율이 30대 초반에서 19.3%로 낮아지고, 30대 후반에서는 7.7%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아직은 혼인을 30대로 미루는 것이지, 미혼이 서구사회처럼 보편화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⁸⁾ 그러나, 미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유배우자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미혼자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견 제거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30대 초반에서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유배우 출산율 역시 30대 초반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여 1996년 77.9에서 2005년 105.5, 2006년에는 116.3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대 후반의 유배우 출산율은 1996년 245.3에서 2005년 229.1, 2006년 228.7로 약간 감소하였고, 20대 초반의 유배우 출산율은 1996년 382에서 2005년 287.8, 2006년 292로 크게 감소하였다.

2) 이혼과 재혼의 영향

감소추이를 보이던 여자 초혼건수가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에는 전년보다 1,572건 증가한 반면, 2006년에는 24,114건이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면(통계청, 2006), 제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에 의해서 많이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세대 중 1979-1981년생이 2006년 현재 25-27세로 혼인과 출산을 많이 하는 연령층에 도달하여 제3차 베이비붐세대를 형성 중이므로 초혼이 증가하게 된다(<부표 2 1>과 <부표 2> 참조).⁹⁾ 아울러,

8) 35-39세 여성의 미혼율이 아일랜드는 2006년 26.6%(CSOI, 2007), 미국은 2006년 16.7%(Census Bureau, 2007), 일본은 2000년 13.8%(Statistics Bureau, 2007)이다.

9) 초혼 최빈도 연령층은 26-27세, 첫째아 출산 최빈도 연령층은 28-29세이다.

<표 8> 주요 혼인력 지표

(단위: 천건, %)

연도	혼인		B/A	이혼		외국인		D/A	외국인		E/D
	건수	여자초혼건수		건수	여자재혼건수	혼인건수	이혼건수				
	(A)	(B)		(C)	전체	20-39	(D)		(E)		
2002	306.6	253.0	82.5	145.3	52.6	32.9	15.9	5.2	1.9	1.3	
2003	304.9	247.6	81.2	167.1	55.8	33.3	25.7	8.4	2.2	1.3	
2004	310.9	245.4	78.9	139.4	63.6	33.4	35.4	11.4	3.4	2.4	
2005	316.4	247.0	78.1	128.5	66.7	36.1	43.1	13.6	4.3	3.3	
2006	332.8	271.0	81.5	125.0	59.8	32.8	39.7	11.9	6.3	5.0	

2006년 쌍춘년 및 2007년 황금돼지해에 대한 기대감도 초혼증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혼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Park, 2006), 1970년 이후 2003년까지 이혼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을 정점으로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55세미만의 연령별 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모든 지표에서 하락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을 보면,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전연령층에서 2003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초혼과 이혼 양상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었던 내국인의 초혼은 2005년부터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은 쌍춘년의 영향으로 급증하였으며, 2007년도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혼율 증가 및 유배우율 감소가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초혼이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혼이 증가하고, 이혼이 감소하는 등 가족의 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형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은 출산율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가족의 형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증가하던 재혼은 2006년에 전년대비 남자는 4,084건, 여자는 6,915건이 각각 감소했다. 여자 재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7.2%에서 2005년 21.1%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18%로 감소하였다. 남자 재혼도 2002년 18.9%에서 2005년 16.7%, 2006년 15.4%로 감소하였다. 남녀 재혼 중 20-39세에 이르는 주 출산연령층의 재혼 역시 절대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전체 재혼건수에서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남녀 모두 감소 추세이어서 재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성 및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단위: 해당연령 성별 유배우자 천명당 이혼건수)

		유배우 이혼율					전년대비 증감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자	전연령	12.6	14.5	12.0	11.0	10.6	0.8	1.8	-2.4	-1.0	-0.4
	20~24	47.5	46.8	43.5	45.4	47.5	2.8	-0.8	-3.3	1.9	2.1
	25~29	24.2	26.3	22.9	21.9	20.1	2.7	2.1	-3.3	-1.1	-1.7
	30~34	17.8	20.7	17.4	16.4	15.6	1.3	2.9	-3.3	-1.0	-0.8
	35~39	17.6	19.9	16.8	15.5	14.7	1.6	2.4	-3.2	-1.3	-0.7
여 자	전연령	12.6	14.5	12.0	11.0	10.6	0.8	1.8	-2.4	-1.0	-0.4
	20~24	41.3	42.9	42.1	44.3	41.9	3.9	1.5	-0.8	2.2	-2.3
	25~29	21.6	24.7	21.7	20.6	18.3	2.1	3.1	-3.1	-1.1	-2.3
	30~34	17.5	20.5	17.2	16.0	15.1	1.4	2.9	-3.2	-1.2	-1.0
	35~39	17.0	19.1	15.9	14.7	14.1	1.3	2.1	-3.2	-1.2	-0.6

3)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한국인 남자 또는 여자가 외국인 남자 또는 여자와 혼인하는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2%에서 2005년 13.6%로 커지다가, 2006년 11.9%로 감소하였고, 국제혼인건수 자체도 2006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통계청, 2007b). 국제혼인의 경우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 이혼건수 중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3%에서 2006년 5.0%로 증가하였고, 이혼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02년 1866건에서 2006년에 6280건을 넘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06년 309건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가 이혼한 전체 건수의 7.7%를 차지한다.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이 이혼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는 209건으로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이 이혼한 전체건수의 9.7%를 차지한다.

동거기간별 이혼을 보면, 2006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가 동거기간 4년 이내 이혼하는 비중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간 이루어지는 전체 이혼 중 91%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전체건수의 61%를 차지한다. 따라서, 2006년에 이혼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가 3.2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는 5.8년이다(〈표 10〉 참조).

<표 10> 외국인과 혼인해서 이혼하는 부부의 평균동거기간 및 이혼건수
(단위: 년, 건)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2004	3.3(1611)	5.9(219)	2.9(1,250)	6.2(1,789)	6.2(1,626)	5.4(81)
2005	3.4(2444)	7.5(230)	2.9(2,053)	6.1(1,834)	6.2(1,583)	4.4(171)
2006	3.2(4010)	6.7(275)	2.9(3,569)	5.8(2,270)	6.1(1,793)	4.0(381)

주: 1) 선진국은 일본, 미국, 캐나다, 개발도상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고, 우즈베키스탄 등
2) 괄호안은 이혼건수

외국인의 국적별로 이혼시까지의 평균동거기간을 보면¹⁰⁾,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의 이혼 시 평균동거기간은 남편의 국적이 선진국,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이다. 반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시 평균동거기간은 부인이 개발도상국일 경우 2.9년으로 일정하다. 부인의 국적이 선진국일 경우 연도별로 다소 등락을 보이는데 극소수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외국인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4년 이내 이혼하는 구성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언하면, 대다수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없이 이혼으로 빨리 끝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전국 차원에서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 다만, 주혼인연령층의 성비 불균형이나 가치관의 변화, 세계화 및 국제화 등의 추이를 감안할 때 국제결혼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결혼이 출산율 제고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전년대비 2006년에 연령별 출산율, 유배우 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산율 모두 30대의 출산율만 증가하였고, 20대의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30대가 2006년의

10) 외국인 이혼의 경우 귀화하지 않은 사람만 외국인으로 포착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별로 귀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도별 추이만을 비교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11) 구시군을 단위로 2006년 합계출산율과 2005년 전체 혼인건수 중 외국인 처의 비율간 단순상관관계는 0.15이다. 참고로, 2005년 외국인 처의 비중이 20%이상인 구시군은 23개로(강원 2, 충북 5, 전북 5, 전남 6, 경북 3, 경남 2), 이 중 6개 군에서만 2005년 대비 2006년의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출산을 증가를 주도하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출생아수 역시 30대에서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증가하였고, 20대 후반에서는 첫째아 출산만 몇백명 증가했을 뿐 20대 전체의 출생아수는 감소하여, 출생아수 증가 역시 30대가 주도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인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변화가 출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여성의 초혼연령과 첫째아 출산연령 상승 폭이 2006년에 다소 둔화되었고, 둘째아이상의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에 따라 왜곡되어 나타나므로,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을 계산해 본 결과, 합계출산율이 2006년에 상승한 것은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재확인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과 템포조정합계출산율의 출산순위별 비교를 종합해 보면, 첫째아와 둘째아는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출산템포)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와 둘째아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센서스에 나타난 1985-2000년 동안의 가족의 크기 변화에서도, 무자녀 가족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세자녀 이상 가족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한 자녀나 두자녀 가정의 비율은 연도에 따라 등락을 보인다(Choe and Park, 2006). 이는 첫째아 출산을 유도하면서, 첫째아를 둔 사람들에게 둘째아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보다 더 현실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유배우율을 증가시켜야 하나, 유배우율은 계속 감소추이를 보인다. 아직은 초혼이 연기될 뿐 미혼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미혼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관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미혼상태에서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배제 및 입양제도 활성화, 사회적 양육방법 마련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혼인에서 첫출산까지의 기간은 점차 빨라지고, 둘째아와 셋째아이상을 갖는 기간은 늘어나면서, 첫째아는 30대 초반에, 둘째아는 30대 후반에 가장 많이 출산한다. 출산연령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산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모의 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이상이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35세 이상 모에서의 발생률이 35세 미만 모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07c). 저체중아(2.5kg 미만)의 출생비율이 35세 미만에서는 4.1%인데, 35세 이상에서 5.9%로 증가한다(통계청, 2007a). 따라서 첫출산

과 둘째아 출산이 35세 이전에 이루어짐으로써 고령임신·출산에 수반된 임신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인 여성인구 및 초혼건수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주 출산연령층인 20-39세의 여성인구가 최근 계속 감소하여 출생아 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0대 초반의 여성인구는 2006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초혼건수 증가로 30대 초반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인구구조의 특성상 2005년부터 초혼이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의 여성인구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에 쌍춘년 및 황금돼지해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서 2006년에 초혼이 많이 이루어졌고, 2007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혼은 26-27세, 첫째아 출산은 28-29세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동거부터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1.74년이 소요되므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여성인구 급증은 2008년 이후에 감소할 전망이고, 20대의 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따라서 20대 후반에 혼인·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출산력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세 번째 질문인 혼인상태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이 감소함에 따라 이혼이 출산력 감소에 기여하고, 재혼이 출산력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상호 상쇄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결혼이 증가추세이고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 역시 많아지는 상황이다. 국제결혼이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 적응 등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출산력에 인구·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출산율, 출생아수, GDP 간 Eviews를 이용한 시차분석은 물론, 다양한 거시경제지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2005년 센서스를 활용하여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 출산력도 분석하였고, 분석단위를 구·시·군으로 하여 다양한 요인의 인과관계도 탐색하였으나, 출산율의 거시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출산율이 미시적 및 거시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집중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표 1> 연령별 여성인구의 전년대비 증감

(단위: 천명)

연도	계	20~39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2001	58	-5	-104	26	-78	48	-59	97	130
2002	11	-78	-109	22	-74	32	-37	71	104
2003	-27	-85	-87	12	-79	-14	32	15	93
2004	-29	-76	-45	-39	-58	-33	54	-17	111
2005	-59	-108	-18	-91	1	-51	34	-35	101
2006	-55	-103	10	-103	28	-75	47	-58	96
2007	-67	-112	20	-91	24	-72	29	-29	54
2008	-83	-132	29	-76	1	-63	7	-6	24
2009	-105	-146	31	-53	-38	-37	-21	17	-6
2010	-123	-149	25	-26	-75	-2	-45	29	-28

주: 2006년까지는 실적치인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2007c)이고, 2007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7b)를 근거로 작성.

<부표 2> 여성의 연령별 초혼건수의 전년대비 증감

(단위: 건)

연도	계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이상
2000	-26,279	-1,040	-13,228	-12,882	1,674	-285	-197	-273
2001	-18,360	-1,442	-12,569	-7,157	2,661	130	-27	39
2002	-13,363	-1,149	-8,843	-6,187	3,239	-142	-185	-111
2003	-5,405	-634	-6,256	-2,664	3,645	357	118	32
2004	-2,226	-50	-5,302	-2,059	4,080	750	178	194
2005	1,572	806	-4,809	701	3,615	995	68	196
2006	24,114	1,905	1,039	13,043	6,339	1,727	175	-114

주: 인구동태신고자료(통계청, 2007b)이며, 계는 연령 미상이 포함됨.

참고문헌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 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1): 119-149.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 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_____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출산율의 변화》 집문당.

김태현 (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통권》 102: 16-24.

- 김태현 · 이삼식 · 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 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7a) “금년도 저출산 3.4조원 · 고령사회대비 3.9조원, 총 7.3조원 지원키로-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팔 걷고 나선다” 1. 31. 보도자료.
- _____ (2007b)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 5. 8. 보도자료.
- _____ (2007c) “선천성이상아 조사 결과” 5. 17. 보도자료.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 _____ (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 이삼식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희 (2002) “출산력” pp.81-113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 _____ (2006) “한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추이와 전망” 《통계》 대한통계협회 32(1/2): 60-90.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 _____ (2007a) 《2006년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 출생 · 사망편)》
- _____ (2007b) 《2006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 이혼편)》
- _____ (2007c) 《2006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연보》
- Bongaarts, John and G. Feeney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Bongaarts, John (1999) “The fertility impact of changes in the timing of childbearing in the developing world” *Population Studies* 53(3): 277-289.
- CSOI(Central Statistics Office Ireland, Department of the Taoiseach(Prime Minister)) (2007) <http://www.cso.ie/census>.

- Choe, Minja Kim, Larry L. Bumpass and Noriko O. Tsuya (2004) "Employment" pp. 95-113 in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Norik. O Tsuya and Larry L. Bumpass.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hoe, Minja Kim, R. Retherford and S. K. Kim (2004) "Very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atterns and Prospects"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 Choe, Minja Kim and Kyung Ae Park (2006) "Fertility decline in SouthKorea: Forty years of policy-behavior dialogu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2): 1-27.
- Kohler, Hans-Peter, F. C. Billari and J. A.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Lee, Jungmin and Myungho Paik (2006) "Sex preferences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during the year of the horse" *Demography* 43(2): 269-292.
- Park, Kyung Ae (2006) "Fertility decline in Korea: Trends,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Population and Society* 2(2): 77-113.
-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Japan (2007) <http://www.stat.go.jp>.
-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6) <http://www.census.gov>.
- Yi, Zeng and Kenneth Land (2001) "A sensitivity analysis of the Bongaarts-Feeney method for adjusting bias in observed period total fertility rates" *Demography* 38(1): 17-28.

[2007. 9. 8 접수 | 2007. 11. 1 채택]

Recent Ferti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yung-Ae Park

Total fertility rate (TFR) increased from the lowest 1.08 in 2005 to 1.13 in 2006, and a debate is made whether the increase is temporary or continuous as a result of various pro-natal policies.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revealed in recent fertility change using vital statistics. For this purpose, tempo-adjusted fertility rate by birth order, fertility rate by age of mother and birth order, age-specific fertility for married, and age-specific divorce rate for married are analyzed. The increase of TFR and births for 2006 is largely due to increase of first births at early thirties with slowdown of delayed first marriage and first child birth. The increase of female population (the third wave effect of baby boom) and first marriages of late twenties in 2006 and 2007 would lead to increase of fertility during 2007-2008. But further increase is uncertain because of the decrease trend of marital fertility and increase trend of never-married for twenties. TFRs for first and second births reduced rapidly, while TFRs for third and above births showed no changes, and second births were largely affected by tempo-adjustment of fertility. Thus, constructing social environment for first and second births is more effective and necessary than encouraging third births. In addition, social responsibility of child care, child-women health issues due to delayed births, and the need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are discussed.

Key Words: total fertility rate, low fertility, fertility, first marriage, female population, pro-natal policy